대학생 전법 시동…"1교구 1대학 지원"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집행위 · 정책기획단 연석회의

위원들 집결 향후 비전 공유
거점 대학에 불교학생회 설립
2025년까지 회원 2만명 목표

본사별 전법 권역 협의 진행
종단협 소속 종단 협조 확대
9월 5~6일 통합 워크숍 개최


상월결사는 7월 19일 동국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학생전법위원회 집행위원회 · 정책기획단 연석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사진은 위원들이 삼귀의를 하는 모습.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학생 전법을 위해 출범한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캠퍼스 포교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부터 1교구당 1개 대학에 불교학생회 설립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전국 대학 불교학생회 회원 2만 명을 목표로 대학생 전법이 추진된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7월 19일 동국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학생전법위원회 집행위원회 · 정책기획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월 6일 공식 출범한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는 600여 명의 전법위원이 참여하는 전국구 전법공동체다. 집행위원회는 각 교구를 대표하는 전법위원과 조계종 포교원, 셀럽, 비구니 종회의원, 교수불자 대표 등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인도순례단 전법위원인 원명 스님이 맡았다. 정책기획단은 대학생전법위원회 출범 TFT가 변경된 것으로 단장은 박기련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전국 400여 대학 중 불교학생회가 없는 곳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본사별 대학 전법 권역을 정리했다. 또한 대학생전법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도 공유했다.

대학생 전법위원회의 올해 1차 목표는 '1교구 1대학'의 기치 아래 지역 거점 대학 내 신규 불교학생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동국대 단과대학별 불교학생회 설립도 진행된다. 내년 불교학생회 회원 1만 명을 목표로 기존 대불련 회원 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 전법위원회는 2025년까지 대불련 소속 불교학생회 가입 대학을 현재 58개에서 10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학생회원 수를 2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생 전법을 범종단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계획도 공유됐다. 이는 "대학생 전법에는 소속 종단이 없다"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원력에 따른 것으로, 상월결사는 오는 8월 28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대표들을 초청해 대학생 전법의 현황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학생 전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오는 9월 5~6일 1박 2일 간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전법위원 워크숍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워크숍은 9월 5일 오전 11시 입재식을 시작으로 △모범 운영 사례 발표 △유정현 대불련 회장의 '대학생 학생회 활성화를 위한 제안' △'MZ세대 이렇게 다가가야 한다' 초청 특강 △권역별 전법위원 구성 및 토론이 진행된다. 6일에는 △초청특강 △의료 · 군종 · 동국대 전법활동 추진계획 발표 △권역별 발표 및 종합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활한 워크숍 진행을 위해 대학생 전법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정책기획단은 8월 8일 오후 3시 2차 연석회의와 8월 24일 오전 10시 예비 워크숍을 열고, 지도법사 추가 위촉과 워크숍 세부 논의 주제 등을 조정키로 했다.

대학생 전법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 건학위원장)은 "대학생 전법위원회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회향하며 회주 자승 스님께서 강조하신 대학생 전법의 원력으로 시작됐다. 무엇보다 자승 스님께서는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전법을 강조하셨다"면서 "내년 1만 불교학생회 회원들을 모아 장충체육관에 전법대회를 열 계획이다. 모든 사부대중이 적극적인 자세로 전법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대학생전법위원회 집행위원장 원명 스님은 "대학생 전법에 한국불교 미래와 중흥이 달려있다. 적극적으로 전법에 임하겠다는 원력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1만 대학생 불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생 전법위원회 집행위원회 · 정책기획단은 회의에 앞서 동국대 중강당에서 연습 중인 5기 '한음아카데미오케스트라' 단원과 이를 이끌고 있는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동국대 한국음악과 석좌교수)을 격려했다. 이들은 7월 21일 열린 '2023 국악관현악축제'에 참여한 국악 전공 대학생들로, 동국대를 비롯한 11개 대학 재학생 80명으로 구성됐다.

"가족기도는 온 가족이 함께해야"

도선사 찾은 진우 스님, 초하루법회서 법문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절에 다니면서 가족기도를 많이 올립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지만 가족기도는 가족 구성원 1명이 아닌 모두가 함께 할 때 더 큰 공덕이 쌓입니다. 언제까지 자식들한테 '내가 너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왔다' 고 해야겠습니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이 7월 18일 음력 초하루를 맞아 호국참회 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에서 법문에 나섰다. 스님은 이날 본격적인 법문에 앞서 최근 호우 피해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빗줄기를 뚫고 온 불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업장소멸을 위한 불자들의 삶의 자세를 주제로 법문을 시작했다.

진우 스님은 가장 먼저 천상과 인간, 수라를 한데 묶은 삼선도(三善道)와 지옥, 아귀, 축생이 해당하는 삼악도(三惡道), 즉 육도를 언급했다. 이어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 탐진치 삼독심에 따른 업이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생사는 단순히 태어나고 죽는 것이지만 우리 삶에서 좋은 게 생기면 반대로 싫은 게 있는 것처럼 인과가 작용하고 이는 곧 업이 된다"며 "부처님께서는 인과의 업을 줄이라고 하셨다. 그게 바로 업장 소멸이고, 내 안에 있는 업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야말로 생사해탈의 경지"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신구의(身口意) 삼업의 업장 소멸을 위해 수많은 스님들이 참선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정좌한 자세로 신업을 청정히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묵언으로 구업을 청정히 하고, 화두를 지속적으로 참구하면서 의업을 청정히 하는 것이 곧 참선이라고 스님은 강조했다.

이어 "불자들이 스님들처럼 참선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염불을 하거나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게 가장 좋다"며 "그중에서도 보시는 세상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는, 아상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보시 중에는 법보시가 최고라고 강조한 스님은 "불자들이 가족에게도 부처님 말씀을 전해 법보시 공덕을 더욱 키워야 한다"면서 "사찰 법회나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권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명상 대중화에 '불교' 적극 살려야"

조계종 포교원, 종책 연찬회
오용석 교수, 승가역할 강조


7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조계종 포교원 제81차 포교종책 연찬회.

불교명상의 기본개념과 정신을 확인하고 명상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사례를 통해 대중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7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81차 포교종책 연찬회'를 개최했다. '전법의 관점에서 보는 불교명상'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찬회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명상 △사찰의 명상 프로그램 운영사례 △공동체를 위한 자비의 실천, 명상 등 3부로 나눠 발제가 이어졌다.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불교명상의 기본 개념과 정신'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K-불교명상'의 가능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불교명상 관점에서 K-불교명상은 개념 범주에서 K-명상보다 깊고 포괄적인 층위를 갖는다. 따라서 불교명상 대중화와 보편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불교'라는 이름을 지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살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오 교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승가의 역할 강조와 계학에 근거한 이타행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승가에 대해 "깊은 전통을 가진 건강한 승가의 역할은 자기암시적 심리효과나 자기계발 등을 명상의 근본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대중적인 명상법들이 갖는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자비실천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불교명상은 우리를 나른한 자아도취, 현실에 대한 망각 등을 부추기게 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면서 "그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마주하고 자신으로부터 빠져나와 무상한 현실 속에 자비심을 갖고 다른 존재를 돕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불교명상이 대중적인 명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자비의 실천"이라면서 "불교명상은 각종 명상이 범람하는 현대사회에서 마중물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찬회는 생명존중과 자비실천을 위한 명상의 발전 가능성과 함께 향후 불교명상 대중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황수경 동국대 명상심리상담학과 겸임교수는 '생명존중과 자비실천을 위한 명상'에서 생명존중과 공생(共生)의 가치관을 소개하고 "단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명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요익중생할수 있는 불교명상과 마음치유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당연직 종단협 회장 수행키로

이사회 결의…회장 선출 논란 해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30개 종단협의 체인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직을 앞으로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는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23년 제2차 이사회 및 제60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위원회가 회의를 거쳐 이사회에 부의한 정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39명 가운데 35명이 참석, 4명이 위임했다.

종단협 회장직은 1969년 종단협 전신인 대한불교총연합회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조계종 총무원장이 맡아왔다. 기존 정관에는 '회원종단 대표 또는 회원종단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해임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종단 역사성과 규모를 고려해 조계종이 사실상 종단협 회장직을 수행한 것. 하지만 지난 2018년 12월, 前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과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이 회장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두 종단 모두 상당 기간 회비를 미납하다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 완납하면서 자격문제 시비도 제기됐다. 결국 태고종과 대각종이 회장 후보 등록 의사를 철회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종단협 내에선 조계종의 사실상 회장직 수행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종단협은 이날 정관개정을 거쳐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했다. 또 3년 단임의 사무총장직은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외에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돕기 위해 긴급재난기금 50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최근 종단대표로 취임한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부회장 임원변경도 이뤄졌다. 이 자리서 덕수 스님은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잘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어 상진 스님은 "한국불교와 종단협을 위해 부처님 제자로서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불교전통범패 학인모집

위 본 종단 종무원에서는 강주 민지효 스님을 모시고 전통범패의식을 기초의식부터 각종 의식과 사물 다루는 법을 알기 쉽게 교육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바랍니다.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신 분은 종무원장님으로부터 수료증(이수증)을 수여하며, 성적이 우수한 학인에게는 홍익범패단에 입단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개 강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불교태고종 종무원 법당
■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47 청하빌딩 4층
■ 접수처 : 부산 종무원 (051-5580-5077)
■ 강 주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내 용
1. 조석예불 : 아침종송, 향수해례, 사성례 등
2. 사시예불 : 거불성, 독경, 동음 등
3.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헌좌게, 도량게 등
4. 천도의식, 수륙제, 점안의식, 화청, 공덕게
5. 천수바라, 사다라리바라, 요잡, 관욕바라
6. 도량게, 다게(나비춤), 법고춤

태고종 부산종무원 원장 마나

국가무형문화제 50호 영산재(세계유네스코 등재)



아직도 어깨와 허리힘으로 광택을 내시나요
광택은 쉽고 빠른 이지 골드로!!
이지골드 광택제는 닦기가 쉽고 광택이 오래 유지됩니다!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골드
EASY GOLD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은, 동
놋쇠(방짜), 신주, 자동차 알미륨휠, 스테인레스, 모든 금속류

스텐, 알루미늄, 청, 법랑, 타일 등의
산화물 세척의 원조!!
ST-100V
에스티-백 브이



영 일 상 사 010-5462-3620
영일상사 1호점 010-3495-5579
네이버 쇼핑
영일상사 1호점 검색